

으로서 약300명의 연구원이 동남아연구소, 농촌 발전연구소 등 11개 부설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 연구 및 국제세미나 개최 △연구인력 교류 및 각종 정보 공유 등을 골자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모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충남도 안희정 지사, 충남도의회 김홍장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등도 참석해 협약식을 축하하며 상호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의 연구영토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면서 “사회·경제·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인식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충남발전연구원(위원장 박진도)은 부탄왕국 부탄 종합연구원(Center for Bhutan Studies and GNH Research, 원장-다쇼 카르마 우라, Dasho Karma Ura)과 행복지수를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연구협약을 4월 25일 부탄종합연구원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부탄종합연구원은 1998년 설립되어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지역정책개발, 역사문화사원 등 사회과학 중심의 종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기관이다.

향후 두 기관은 △행복연구 등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협력 △연구를 목적으로 한 상호 교류 및 정보 교환 △국제학술세미나 등 공동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 내용을 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충발연은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과 정책방안 연구’를 계기로 부탄의 국민총행복위원회(GNHC) ‘카르마 치림’ 장관을 비롯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등을 초청, “행복한 삶, 경제적 가치를 넘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올해도 행복연구는 계속 되고 있지만 이는 충남만의 관심사가 아닌 새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아젠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은 물론, 환경·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충남발전연구원, 부탄종합연구원과 행복연구 협약 체결

- 박진도 원장 “행복충남 실현 위한 정책연구에 적극 협력키로”

